

'잠재성장률 2%p 제고'를 위한

# 경제주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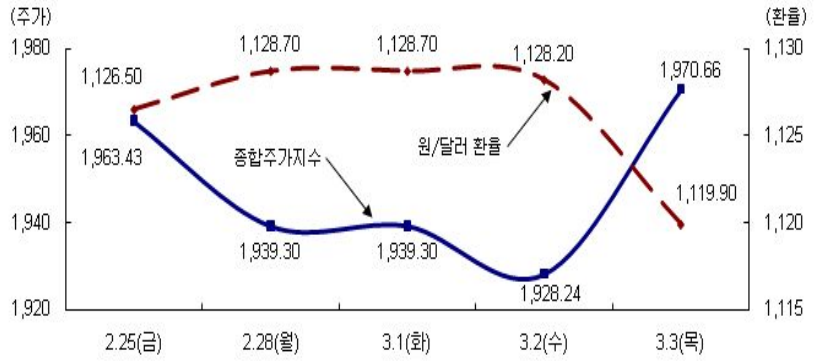
HRI Weekly Economic Review



[ '재스민 혁명'의 확산과 파급 영향 ]

週間 主要 經濟 指標 (2.25~3.3)

Better than  
the Best!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 1

□ ‘재스민 혁명’의 확산과 파급 영향 ..... 1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10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연구본부 : 유 병 규 경제연구본부장 (2072-6210, bkyoo@hri.co.kr)  
: 최 성 근 선임 연구원 (2072-6223, csk01@hri.co.kr)  
: 김 천 구 연구원 (2072-6211, ck1009@hri.co.kr)  
: 임 희 정 연구위원 (2072-6218, limhj9@hri.co.kr)

## Executive Summary

### □ '재스민 혁명'의 확산과 파급 영향

#### ■ 재스민 혁명의 확산

튀니지발 '재스민 혁명'이 중동의 민주화 '모래 폭풍'으로 확산되고, 중국과 북한 등 사회주의 국가에도 민주화를 촉구하는 '황사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 ■ 재스민 혁명의 확산 배경

최근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민주화 시위 사태는 크게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3가지 측면에서 그 배경을 파악할 수 있다. **첫째**, 정치적 요인이다. 오랜 독재 체제 또는 왕정 체제 하에서의 억압된 사회 구조와 소구 권력층의 부정부패로 국민들의 불만이 누적되었다. **둘째**, 경제적 요인이다. 소수 권력에 의한 경제적 이익의 독점, 저성장에 따른 높은 실업률,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식량난 등이 요인으로 작용했다. **셋째**, 사회적 요인이다.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시민들의 시위가 조직화되었고, 민주화 소식이 국경을 넘어 전파됐다. 트위터(Twitter), 구글(Google), 아이폰(i-Phone), 페이스북(Facebook)으로 집약되는 스마트 'TGIF 혁명'이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한 것이다.

#### ■ 재스민 혁명의 파급 영향

재스민 혁명의 경제적 파급 영향은 두 단계로 나누어 예측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재스민 혁명이 중동 지역에 국한되어 전개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국제유가 급등과 이로 인한 세계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우려된다. 중동지역의 민주화 시위가 확산되어 정정 불안 사태가 지속되면, 원유 수급 불안 및 투기자금의 집중으로 인해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사우디 등으로 확산되는 최악의 사태에는 국제유가가 평균 110달러까지 치솟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2차, 3차 석유위기 때보다 실질가격 면에서 높은 것으로 4차 석유위기의 발생도 우려된다. 한편 유가 급등은 세계적인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를 초래하여 과거 석유 위기 당시와 같은 세계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날 위험성을 높여준다.

두 번째 단계는 재스민 혁명이 중동을 넘어 중국, 북한 등 아시아 지역으로 확산되는 경우다. 이런 경우 세계 경제는 금융 불안이 가중되고, 중국 경제 침체에 따르는 세계 경기의 급속 위축과 북한의 정치·경제적 난국으로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성이 고조될 위험성이 높아진다. 금융 측면에서 국제유가 급등과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로 신흥개도국의 환율 상승, 주가 폭락과 같은 금융시장의 대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 또한 중국 경제 측면에서는 중국 물가 불안 확대 및 내수 경기 침체 심화 등으로 세계 경제의 성장 기조를 약화시키게 될 것이다. 특히 북한의 경우 식량난 지속 등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된 가운데 민주화 열기가 확산된다면 체제 불안과 같은 급변사태 발생이 우려된다.

#### ■ 대응 방안

**첫째**, 중동 리스크에 따르는 4차 석유 위기에 대비하여 비상 대책 마련과 석유 비축 규모 증대 및 에너지 수급로를 다양화해야 한다. **둘째**, 경제·사회 부문의 비용 절감 노력 등을 통해 물가 상승 압력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셋째**, 중장기적으로 효율적 산업구조 개선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중동 지역이나 중국의 경기 위축에 따르는 한국 수출 시장 감소에 대비하여 수출 시장 다변화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 **다섯째**, 인도적 대북 식량 지원을 통해 북한 급변사태 발생을 막고 남북 관계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 I. 재스민 혁명의 확산

- 튀니지의 '재스민 혁명'이 중동의 민주화 '모래 폭풍'으로 확산되고, 중국과 북한 등 사회주의 국가에도 민주화 '황사 바람'을 일으키고 있음
  - 튀니지에서 시작된 민주화 시위는 이집트와 리비아 등 북아프리카로 확대되었으며, 주변의 중동 산유국들로 점차 확산되고 있음
    - 튀니지와 이집트에서는 이미 독재자가 물러났으며, 리비아에서도 수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을 시위대가 장악
    - 예멘, 바레인, 알제리, 이란, 이라크 등지에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고 있으며 유혈 충돌 사태로 발전하고 있음
    - 이러한 민주화 시위의 여파는 중동의 주요 산유국인 사우디 등지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사우디 정부는 이러한 사태를 우려하여 360억 불에 달하는 민생지원자금을 풀어 시위 확산 방지에 나섬
  - 중국에서도 '재스민 혁명'을 촉구하는 글이 인터넷에 등장하고 있으며, 북한에서도 경제난에 시달리는 주민들의 저항이 점차 일어나고 있음
    - 중국에서는 2월 20일 시위장소로 게시된 수도 베이징과 상하이 등에 수백명의 시민들이 몰려들었고 공안 당국에 의해 강제 해산
    - 북한에서도 주민과 관리원 사이에 폭력사태가 발생하는 등 주민들의 생계형 시위가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 재스민 혁명의 확산 현황 >



## II. 재스민 혁명의 확산 배경

○ 최근 중동을 중심으로 일어난 민주화 시위 사태는 크게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3가지 요인에 의해 발생

- **정치적 요인** : 오랜 독재 체제 또는 왕정 체제 하에서의 억압된 사회 구조와 소수 권력층의 부정부패로 국민들의 불만이 누적
  - 리비아로 대표되는 중동의 독재국가들은 정적들을 가혹하게 탄압하고,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 야당이나 언론의 자유 등을 탄압
  - 왕정국가들에서도 권력 독점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국민들의 정치·사회적 개혁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중동 지역 국가들의 부패 정도를 나타낸 부패인식지수와 민주화 정도를 나타낸 민주화지수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에 속함

< 2010 부패인식지수 순위 >

국가	점수	순위(178개국)
이라크	1.5	175
예멘	2.2	146
리비아	2.2	146
이란	2.2	146
시리아	2.5	127
레바논	2.5	127
알제리	2.9	105
이집트	3.1	98
모로코	3.4	85
중국	3.5	78
튀니지	4.3	59
쿠웨이트	4.5	54
사우디	4.7	50
요르단	4.7	50
바레인	4.9	48
오만	5.3	41
UAE	6.3	28
카타르	7.7	19

< 2010 민주화지수 순위 >

국가	점수	순위(167개국)
북한	1.08	167
사우디	1.84	160
리비아	1.94	158
이란	1.94	158
시리아	2.31	152
UAE	2.52	148
예멘	2.64	146
튀니지	2.79	144
오만	2.86	143
이집트	3.07	138
카타르	3.09	137
중국	3.14	136
알제리	3.44	125
바레인	3.49	122
요르단	3.74	117
모로코	3.79	116
쿠웨이트	3.88	114
이라크	4.00	111
레바논	5.82	86

자료 : Transparency International; EIU.

주 : 1) 점수는 각각 10점 만점임

2) 북한의 부패인식지수는 측정불가로 순위에서 제외

- **경제적 요인** : 소수 권력에 의한 경제적 이익의 독점, 저성장에 따른 높은 실업률,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식량난 등이 민주화 요구를 촉발
  - 중동 대부분의 국가들은 OECD국가와 비교할 때 1인당 GDP가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오랜 저성장으로 인해 실업률도 매우 높은 수준임
  - 2011년 식량가격 폭등으로 인해 생활고가 가중되자 국민들의 누적된 경제적 불만이 독재 체제 및 집권층을 향해 폭발



**< 최근 중동 국가별 실업률 >**

국가	실업률 (%)
튀니지	14.2
이집트	9.4
리비아	20.7
예멘	15.0
바레인	17.0
알제리	27.3
요르단	14.0
이란	10.4
이라크	17.5
수단	18.7
모로코	9.4
사우디	5.0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10. Oct.; OECD, ILO, 내외신 종합.  
 주 : 실업률 데이터는 ILO Laborsta 자료를 기초로 함

- **사회적 요인** :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sup>1)</sup>를 통해 시민들의 시위가 조직화되었고, 민주화 소식이 국경을 넘어 전파
  - 튀니지와 이집트에서는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시위 장소 일정, 지침 등이 전파되었고, 시위 세력의 조직화에 결정적인 역할
  - 또한 이집트에서는 구글 임원 와엘 고님의 '눈물 인터뷰 동영상'도 페이스북을 통해 확산되면서 가라앉던 시위 분위기가 고조됨
  - 리비아 정부는 모바일 서비스와 인터넷을 전면 차단했지만, 무자비한 시위 진압 장면이 휴대폰과 디지털 카메라를 통해 전세계에 전파
  - 중국에서도 인터넷 사이트를 중심으로 시위장소가 공유되고 있으며, 중국 정부 당국은 이를 차단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임

1) 트위터(Twitter), 구글(Google), 아이폰(i-Phone), 페이스북(Facebook)으로 대별되는 스마트 TGIF 혁명이 주요 요인이라는 의견도 대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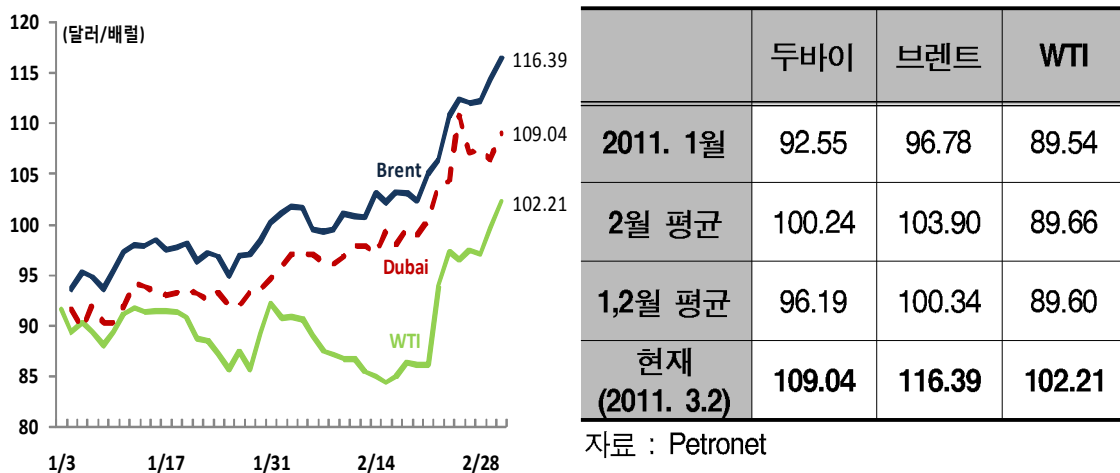
### Ⅲ. 제스민 혁명의 파급 영향

#### 1) 중동지역에 국한되는 경우

○ (국제유가 급등) 주요 산유국으로 정정 불안사태가 확산될 경우 국제 유가는 급등하고, 최악의 경우 4차 석유위기 발생도 우려

- 민주화 시위 등으로 중동 지역의 정정 불안사태가 지속될 경우, 국제 유가는 4차 석유 위기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
- 두바이유(2월24일 기준)는 2008년 9월 이후 처음으로 110달러를 넘어섰으며, WTI도 2008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장중 100달러를 돌파
- 유가 상승 속도로 보면 3차 석유 위기 당시 두바이유가 배럴당 90달러에서 110달러 도달하는데 55일(거래일 기준, 2008. 2. 15 → 2008. 5. 6) 걸렸으나, 2011년에는 43일(거래일 기준, 2010. 12. 21 → 2011. 2. 24)에 불과
- 노무라증권은 중동 사태 확산시 유가가 배럴당 220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했고, 골드만삭스는 WTI가 역대 최고치(145.5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sup>2)</sup>
- 국제 유가가 당분간 상승하더라도 사우디의 추가 증산 여력(1일 400만배럴)과 선진국의 원유 재고 등을 고려할 때 상승세는 한계에 달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사우디 등으로 사태가 확산되고 수급 차질이 발생하는 최악의 경우, 국제 유가가 평균 110달러까지 치솟을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는 실질 가격(2005년=100)으로 98.4달러로서, 2차 석유위기(1981년)와 3차 석유위기(2008년) 당시의 실질 가격인 77.1달러와 89.6달러를 상회

< 국제 원유가격 추이 >



2) 『연합인포맥스』, 『중앙일보』 2011. 2. 24 참고

○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중동지역은 세계 원유 공급의 30%를 차지하고 있어, 향후 물가 급등과 성장률 둔화에 따른 스태그플레이션 현상 발생 우려

- 중동 리스크로 인한 국제 유가 급등은 회복세에 접어든 미국 경기의 침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신흥국 시장의 물가 급등과 유럽 재정 위기의 가속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 올해 발표되는 주요 체감지수들과 고용 및 소비심리지표 등 미국 경제의 회복세가 빠르게 개선되고 있지만, 중동 리스크로 인해 이러한 회복세가 다시 꺾일 수도 있음
  - 중국에서는 이미 경기 과열과 버블을 우려하여 긴축에 나섰으나,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중국발 인플레이션이 미국과 전세계의 동반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우려
  - 유럽의 재정위기는 여전히 불안한 상태를 지속하고 있으며, 중동 리스크의 장기화로 재정위기가 보다 악화될 우려
- 중국과 중동의 물가 상승 압력이 더해질 것으로 보이며, 선진국의 실업률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어서 중동 리스크 장기화로 인해 고물가, 저성장의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우려
  - 중동리스크로 인해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지속할 경우 중국발 인플레이션 현상의 확산과 선진국의 실업률 악화 및 경기 악화가 우려

< 세계 물가 변동 추이 >

		2008	2009	2010
선진국	미국	3.8	-0.32	1.4
	일본	1.4	-1.4	-1.0
	유럽	3.4	0.1	1.4
중국		5.9	-0.7	3.5
중동		13.5	6.7	6.8

< 세계 실업률 추이 >

		2008	2009	2010
선진국	미국	5.8	9.3	9.7
	일본	4.1	3.8	4.0
	유럽	7.6	9.4	10.1
중국		4.2	4.3	4.1
중동		11.3	11.3	11.2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October 2010

주 : 중동 실업률은 알제리, 이집트, 모로코, 사우디, 수단, 튀니지만의 집계이며 이란과 시리아는 2007년 자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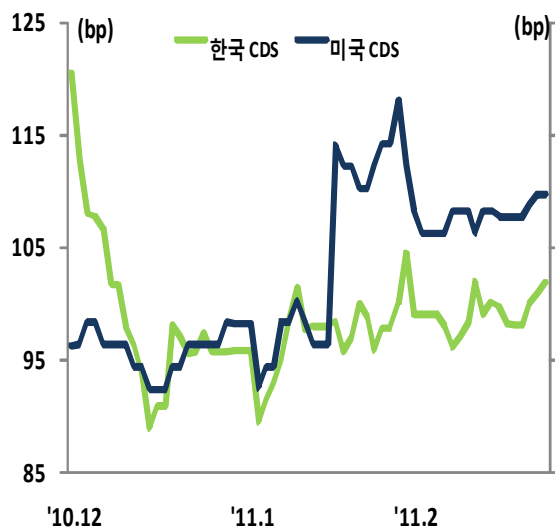


## 2) 중국과 북한 등 사회주의 국가로 민주화 확산

### ○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 국제유가 급등과 중동 및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로 채권 및 주식 시장의 불안이 가중되면서 국내외 금융시장의 혼란 초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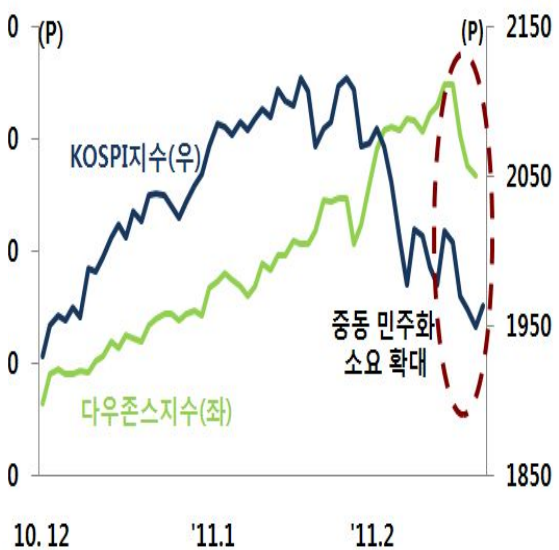
- 중동지역의 민주화 시위가 발행한 이후 미국과 한국의 신용부도스왑프(CDS)프리미엄이 상승하기 시작
  - 특히 1월말 이집트로 사태가 확산되자 미국의 CDS는 38.8에서 51.6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후 하락세로 돌아섰다가 2월에 다시 증가 추세
  - 한국의 경우에도 1월초 89.5에서 1월말 104.5까지 증가하였다가 다소 하락세를 보였지만, 이후 다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음
- 중동의 민주화 시위 확산으로 인해 투자심리 위축에 따라 대규모 투기 자금이 안전자산 및 석유로 몰리면서 주식시장은 급락세를 보임
  - 미국 다우존스지수는 미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집트 사태에도 불구하고 상승했으나, 리비아 사태로 확산되자 12,391p(2. 18기준)에서 12,068p(2. 24기준)로 급락
  - 한국 코스피지수도 연중 최고치인 2,115p(1. 27기준)에서 중동지역 민주화 수요가 확대되자 급락세를 나타내며 1,939p(2. 28기준)로 하락

< 미국 및 한국 CDS 프리미엄 추이 >



자료 : Reut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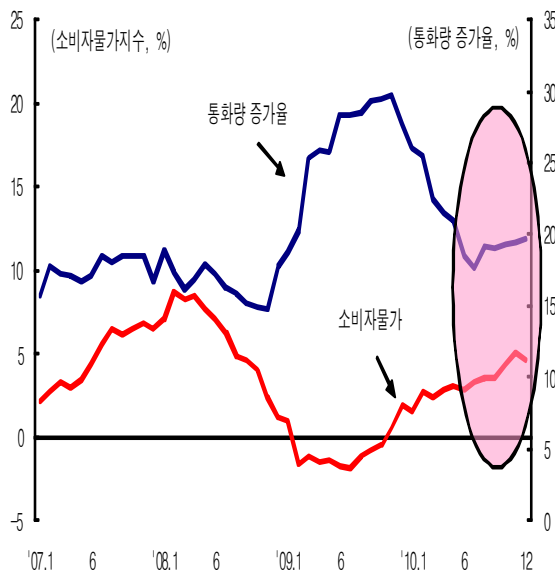
< 미국과 한국의 주가 추이 >



○ (차이나리스크 확산) 물가 불안 확대 등으로 인한 중국 내수 경기 침체는 주변국 대중국 수출 감소로 이어질 것임

- 중국의 물가 불안과 내수 침체는 주변국의 수입물가 상승 및 대중국 수출 감소로 인한 경기 둔화로 이어짐
  - 중동 민주화 확산으로 인한 국제 원유 가격 급등은 중국 소비자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
  - 소비자물가는 2010년 12월 전년동월대비 4.6%로 하반기에 3.3%이상 높은 수준을 지속함으로써 물가 불안 증대. 또한, 통화량(M2)<sup>3)</sup> 증가율은 2010년 12월 전년동기대비 19.7%로 최근 12개월간 20%내외의 높은 수준을 기록
  - 중국 물가가 1%p 상승할 때 국내 수입물가에 0.64%p 만큼 영향을 미치며 이는 다시 국내 소비자 물가에 0.06%p 상승시킴<sup>4)</sup>(2009년 1월 이후 한국 수입물가와 중국의 소비자 물가와의 상관관계는 0.48로 양의 상관관계 보임)
  - 중국의 대세계 수입이 전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내외로 중국 경기 위축에 따르는 대중국 수출 감소는 세계 경기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 물가 상승률과 통화량 증가율 >



자료 : 중국인민은행, Reuters

< 중국의 대세계 수입 규모 >

(단위 : 백만달러 %)

	2009	2010
총계	1,000,578(-11.6)	1,375,451(37.5)
일본	130,749(-13.2)	176,304(34.8)
한국	102,125(-8.9)	138,023(35.2)
대만	85,706(-17.1)	115,645(34.9)
중국	86,380(-6.4)	106,778(23.6)
미국	77,433(-5.0)	101,310(30.8)
독일	55,904(0.0)	74,378(33.0)
호주	39,175(8.0)	59,698(52.4)

자료 : 무역협회. 주 : ( )안은 증가율

3) M2 = M1(현금통화+ 요구불예금) + 준통화(정기예금+ 저축예금+ 기타예금), 말잔기준.

4) 한국은행, '중국 인플레이션의 파급효과', 2010. 12. 16.

○ (북한 급변사태 우려) 식량난의 지속 등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된 가운데 민주화 열기가 확산된다면 체제 불안과 같은 급변사태 발생 우려

- 현재로서는 북한에서 민주화 시위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지만, 최근 생활고로 인한 생계형 시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2월 22일 청진시 수남구역에서 보안서장을 지낸 관리원이 주민들의 돌에 맞아 숨진 사건이 발생
  - 이에 앞서 극심한 생활난에 시달리던 북한 주민이 땀감을 모두 회수한 산림감독대의 감독원 3명을 살해했고, 양강도의 혜산시에서는 지구사령부로 출근하던 군관이 자전거를 빼앗기는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짐
  - 이러한 시위는 아직 조직화되지는 못했으나, 생활고가 더 지속될 경우 북한 주민들의 생계형 시위의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 존재
- 북한은 올해 약 50-60만톤의 수급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주민들의 식량난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북한의 2011년 곡물생산량은 448만톤(정곡기준)인데 반해, 소요량은 535만톤으로 약 87만톤의 수급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
  - 북한은 이를 위해 연간 20~30만톤의 곡물을 수입하고 있으나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며, 2010년에는 31.4만톤의 곡물을 수입했음

< 2011 곡물생산량 추정치(조곡기준) >

구 분	2010/11 양곡년도		
	면적 (천ha)	수량 (톤/ha)	생산량 (천톤)
쌀	570	4.26	2,426
옥수수	503	3.35	1,683
잡곡	13	1.52	19
감자	48	3.30	158
콩	90	2.00	154
밀/보리	104	2.32	240
봄감자	133	3.20	427
텃밭 및 경사지	325	0.69	225
합계	1,786	2.99	5,333*

< 2011 식량소요량 추정치 >

구 분	수량(천톤)
식용 및 가공용	4,250
사료용	150
종자용	219
수확후 손실	554
재고증가	177
총소요량	5,351

자료 : FAO/ WFP, 농촌경제연구원

주 : 1) 생산량은 조곡기준이며 정곡기준으로 하면 448만톤임

#### IV. 대응 방안

- 첫째, 중동 리스크에 따른 국제 유가 급등을 대비하여 비상 대책 마련과 석유 비축 규모 증대 및 에너지 수급로를 다양화
  - 이집트와 주변 중동 지역의 정치적 상황 변화를 면밀히 검토하며, 제4차 석유 위기에 대비한 비상 대책과 에너지 비상수급책 마련
  - 선물 시장을 활용하여 석유 자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비축 규모를 증대하여 국제 유가 상승에 대비
  - 중동 이외의 석유 자원 개발 및 러시아 등의 새로운 석유 수입로를 확보함으로써 중동 지역의 리스크 확산에 대비
- 둘째, 경제·사회 부문의 비용 절감 노력 등을 통해 국제 유가 급등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을 사전에 차단
  - 석유에 대한 관세인하 조치를 시행하는 한편,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유류세 인하도 검토할 필요
  - 에너지 절약 캠페인과 에너지 고효율 차량 및 가전제품 사용을 권장하고 산업부문에서도 에너지 고효율 기기 사용 및 공정 개선을 통해 에너지 이용의 효율성 제고
- 셋째, 중장기적으로 효율적 산업구조 개선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 에너지 소비가 큰 산업구조를 자원 절감이나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등 자원 효율적인 산업 구조로의 전환하는 등의 산업의 구조 개선 노력 강화
- 넷째, 중동 지역 경기 위축에 따른 한국 수출 시장 감소에 대비하여 수출 시장 다변화 전략 추구
  - 중동 지역외 신흥국 시장 진출 등 수출 지역의 다각화를 통해 수출 감소로 인한 리스크를 줄여야함
- 다섯째,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 지원을 추진함으로써 북한 급변사태 발생을 막고, 남북 관계의 안정을 도모

선임연구원 최성근 (2072-6223, csk01@hri.co.kr)

연구원 김천구 (2072-6211, ck1009@hri.co.kr)

연구위원 임희정 (2072-6218, limhj9@hri.co.kr)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국내외 성장률 추이

구분	2009년					2010					2011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E)
미국	-2.6	-4.9	-0.7	1.6	5.0	2.9	3.7	1.7	2.6	3.2	3.0
유로 지역	-4.1	-2.5	-0.1	0.4	0.2	1.8	0.4	1.0	0.3	0.3	1.5
일본	-6.3	-19.9	11.3	-1.2	5.7	4.3	6.8	3.0	4.5	-1.1	1.6
중국	8.7	6.2	7.9	9.1	10.7	10.3	11.9	11.1	10.6	9.8	9.6
한국	0.2	-4.3	-2.2	1.0	6.0	6.1	8.1	7.2	4.4	4.8	4.3

주: 1) 2011년 전망치(E)는 IMF 2011년 1월 기준이고 한국은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임  
 2) 미국,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 EU는 전기대비, 중국, 한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구분	2009년말	2010년		2011년			
		6월말	12월말	2월25일	3월3일	전주비	
해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3.83	3.89	3.30	3.42	3.56	0.14%p
	엔/달러	92.93	88.43	81.19	81.93	81.82	-0.11 ¥
	달러/유로	1.4413	1.2238	1.3350	1.3810	1.3867	0.0057\$
	다우존스지수(p)	10,428	9,774	11,578	12,130	12,258	128p
	닛케이지수(p)	10,655	9,383	10,229	10,527	10,586	59p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	4.41	3.86	3.38	3.84	3.93	0.09%p
	원/달러(원)	1,164.5	1,222.2	1,134.8	1,126.5	1,119.9	-6.6원
	코스피지수(p)	1,682.8	1,698.6	2,051.0	1,963.4	1,970.7	7.3p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구분	2009년말	2010년		2011년			
		6월말	12월말	2월25일	3월3일	전주비	
국제 유가	WTI	79.35	75.77	91.40	97.42	101.88	4.46\$
	Dubai	78.06	73.14	88.80	107.00	109.82	2.82\$
CRB선물지수	283.38	258.52	332.80	351.29	360.56	9.27p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